

#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인문·체육계]

## 1.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I>

[다]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모두를 위해 노력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는 자유가 개인이 모두를 위해 싸우고, 성실히 노력하고, 타인과 고통을 함께 나뉘질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누리지 않는 이들이 자유, 형제, 동포 등을 외치면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다]에 따르면,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유는 자기기만적이다.

이러한 [다]의 화자는 [가]에 동의할 것이다. [가]는 최근의 장애인 지하철 이동권 시위가 민폐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의 모순을 지적한다.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벌이는 투쟁을 두고, 그들이 오히려 나의 편안한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하는 비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자유가 불평등하게 분배된 자원임을 알지 못한다. [다]의 화자는 [가]가 지적하는, 강자가 약자를 “혐오할 자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가]의 입장에 동조할 것이다.

한편 [다]는 [나]가 제안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것이다. [나]는 발화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사고와 발화가 억압당하는 쪽이 소수자이든 다수자이든, 억압은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그 자체이며, 이는 모든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될 때 드러날 수 있다. [나]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잇속만 자유롭게 챙기는 이들을 저지해서는 안 되는데, [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애초에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입장이 갈린다.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심은 그 무엇도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다]는 진리를 위해 어떤 입장이든 자유롭게 유통되는 게 좋다는 [나]의 입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자유의 개념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공백 포함 888자)

<논제 II>의 예시 답안은 합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입장(제시문 [마]와 [바])을 선택하여 윤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입장(제시문 [라]와 [사])을 비판한 경우와 반대로 윤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합리적 소비를 비판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합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윤리적 소비를 비판하는 경우>

제시문 [라]~[사]는 합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마]와 [바] 제시문과 윤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라]와 [사] 제시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 소비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대안적인 소비 상품들의 가격과 효용을 비교한 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는 효율적 소비 행위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마]는 다양한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한 가격 비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할인 혜택, 환율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되 저렴한 가격의 낙후된 시설만을 선택하지 않고 효용의 측면도 강조하는 율로족들의 소비 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바]는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형태인 유기농 제품 소비에 대해 상품 자체의 차원을 넘어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에 걸친 다차원적 분석을 진행하여 유기농 제품의 효용과 비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소비의 입장에서 [라]와 [사]의 윤리적 소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사]에 따르면, 특정 제품을 소비할 때 그 제품의 효용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생산과 유통 과정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품을 소비해야 한다. 하지만 [바]가 보여주듯이 다양한 측면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측면을 강조

하는 윤리적 소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윤리적 소비를 대표하는 유기농 제품은 가격이 높아 잠재적 소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중독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어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조차도 유기농 제품은 탄소 배출량을 늘림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라]는 육식이든 채식이든 소비의 대상은 상품과 화폐의 관계로만 대치되어 그들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생태주의적 소비는 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소비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합리적 소비는 지구 전체의 측면에서 비용과 효용에 대한 합리적 계산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적 소비를 넘어서는 것이다. (1,174자)

<윤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합리적 소비를 비판하는 경우>

제시문 [라]~[사]는 합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마]와 [바] 제시문과 윤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라]와 [사] 제시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저렴한 가격과 상품의 소비에서 나오는 효용만을 추구하는 소비 행위가 비윤리적 생산과 유통의 문제와 자연 훼손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전반에 걸친 윤리적인 소비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는 상품에 대한 소비가 단순히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만이 고려되어서는 안 되고,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과정에 대한 윤리적 관점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는 오늘날의 음식 문화가 소비 대상에 대한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을 잃어버리고 상품과 화폐로 대체되었으며, 나 또한 다른 생명의 음식이 되었을 때 고맙고 깨끗하게 비워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서술함으로써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의 입장에서 [마]와 [바]의 합리적 소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마]에 따르면, 율로죽은 여행 관련 소비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찾아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추구하되 합리적 가격의 프리미엄급 숙소를 찾는 등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는 최대한의 비용 절감 속에 숨어 있는 현지인들의 저임금과 노동력 착취에 눈을 감는 것이며, 합리적 가격의 프리미엄급 숙소 속에 녹아 있는 무분별한 개발과 이로 인한 현지인들의 거주권 문제, 그리고 자연 훼손과 이와 연관된 탄소 배출량 증가 문제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다. [바]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농 제품 소비의 한계를 논의하고 있으나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의 문제와 환경 훼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예컨대 농약과 화학비료를 이용한 농업은 상품 속에 화학물질이 남아 있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해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약간의 가격 부담과 효용 감소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전반적 생산과 유통이 과정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1,168자)

## 2.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문항 해설(출제범위 포함)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I>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논제 II>를 출제하였다. 문제는 현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통합사회』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각각의 제시문 출전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여부
[가]	『경향신문』 (「자유는 ‘없는 자’만이 느낀다」)	오찬호	경향신문	2022 (5월 16일)	인터넷 기사	O
[나]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책세상	2005	p.42	X
[다]	『김남주 시전집』 (「자유」)	김남주	창비	2014	p.249	X
[라]	『고등학교 문학』 (「깨끗한 식사」)	김선우	금성출판사	2019	p.76	X
[마]	『한국일보』 (「‘올로’도 합리적으로...‘올테크’가 뜬다」)	이상원	한국일보	2017 (10월22일)	인터넷 기사	O
[바]	『중앙일보』 (「유기농=안전식품? 세균 오염은 안심 못하죠」)	박태균	중앙일보	2011 (11월28일)	인터넷 기사	O
[사]	『이로운넷』 (「윤리적 소비, 투표하러 시장에 갑니다!」)	유보라	이로운넷	2012 (4월 5일)	인터넷 기사	O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경향신문』의 「자유는 ‘없는 자’만이 느낀다」에서 발췌 및 수정하였다. 제시문은 헌법상의 권리인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출근 시간에 진행되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매개로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동에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라는 개념의 의미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것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경우인지 지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문제를 ‘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에서 밀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강요,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억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수결을 민주주의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칫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가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밀은 개인의 생각과 소수의 의견은 어떤 경우에도 억압될 수 없음을 통해 ‘자유’가 개인의 층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김남주 시전집』에 수록된 「자유」의 전문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개인(‘나’)의 자유가 ‘만인’의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만인’이라는 커다란 맥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시인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노력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인은 걸으로는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부정적인 ‘자유’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의 「깨끗한 식사」를 발췌하였다. 제시문은 육식이든 채식이든 오늘날의 음식 문화가 소비 대상에 대한 고맙고 미안해 하던 마음의 떨림을 잃어버리고 상품과 화폐로 대체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 또한 다른 생명의 음식이 되었을 때 고맙고 깨끗하게 비워질 수 없을 것 같다는 관점의 제시를 통해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구분별한 소비를 지양하고 생태주의적 소비가 필요하다는 윤리적 소비를 지지한다.

제시문 [마]는 『한국일보』의 「‘올로’도 합리적으로...‘올테크’가 뜬다」에서 발췌하고 수정하였다. 올로족들의 여행 관련 소비 행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가격비교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환율에 따른 비용 절감을 추구하지만 무조건 저렴한 가격의 낙후된 시설만을 선택하지 않고 합리적 가격의 프리미엄급 숙소를 찾는 등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합리적 소비의 전형이다.

제시문 [바]는 『중앙일보』의 「유기농=안전식품? 세균 오염은 안심 못하죠」에서 발췌 및 수정하였다.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형태인 유기농 상품 소비의 장단점을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소비 행위의 비용과 효용을 계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합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이로운넷』의 「윤리적 소비, 투표하러 시장에 갑니다」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사]는 상품에 대한 소비가 단순히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만이 고려되어서는 안되고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과정에 대한 윤리적 관점에서 소비를 해야한다는 윤리적 소비의 입장이다. 상품의 가격이 싸지 않거나 효용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지니고 있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 생각하고 윤리적 소비가 이루어져서 보다 윤리적인 생산과 유통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논술고사 문항은 2022년 경희대학교 수시 논술의 논제 유형을 수용하되 보다 장문의 논술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논제 II]는 1,101자 이상 1,200자 이하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논제 I>에서는 세 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하나의 글의 관점에서 나머지 두 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세 개의 지문이 ‘자유’에 대해 조금씩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유사성이 존재하는 두 개의 지문과 이질적인 입장을 지닌 하나의 지문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각 지문을 읽어내는 문해력, 다른 입장을 지닌 지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논제 II>에서는 네 개의 제시문을 제시하고, 입장이 같은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채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제시문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한 입장을 정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